

경제

기아차 광주공장 62만대 증산 어떻게 되거나

썬 진행 상황

1공장 증산체제, 2공장 증축공사 '순항'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62만대 증산 프로젝트가 본 궤도에 올랐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기아차 광주공장의 생산 규모가 확대가 아닌 지역의 수출증가, 고용창출, 협력사 동반성장 등 광주경제의 성장과 밀접하다.

설비공사 마무리...노사 협의 시작

◇노사 증산 협의 본격 가동=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사가 지난 22일 62만대 증산 프로젝트 협의를 본격 시작했다. 수출물량의 백오더(주문물량)가 8만8000여대에 달하고, 신차 RP(카렌스 후속모델)의 내년 본격 양산을 앞두고 있어 증산 시스템 가동을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다.

성공하면 기아차 광주공장은 연간 매출이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증산 프로젝트 순조=광주공장의 62만대 증산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공장은 신차 RP 양산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보완공사와 보공사를 진행했다. 신차 RP는 현재 국내 유일의

LPG차인 카렌스의 후속모델로, 유럽 전략형 차종으로 개발됐다. 지난 9월 파리모터쇼에서 외관이 공개돼 호평을 받았다. RP는 카렌스와 디자인이 차별화됐다. 앞면은 패밀리룩 라디에이터 그릴을 장착해 역동성을 살렸다. LED주간주행등·LED리어 콤파네이션 램프를 적용해 감각적인 느낌을 더했다.

기아차는 이 차를 다음달 중순 유럽형 모델 양산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엔 국내에 내놓을 계획이다. RP가 본격 양산되면 연간 10만대 이상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증산 프로젝트의 핵심시설은 2공장이다. 지난 3월22일 시작해 전착공장 신축, 의장공장 증축, 관련 기반시설 확충 등이 마무리 단계다. 설비공사도 지난 9월29일부터 10월28일까지 한 달 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생산대수를 시간당 21에서 23대로 늘리기 위해 노사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견을 보이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대체로 광주공장의 62만대 증산 프로젝트는 순항하고 있다"며 "2공장 증축공사가 연말까지 마무리되면 내년 초부터는 62만대 증산 체제로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대체로 광주공장의 62만대 증산 프로젝트는 순항하고 있다"며 "2공장 증축공사가 연말까지 마무리되면 내년 초부터는 62만대 증산 체제로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5일 기아차 광주공장이 추진 중인 62만대 증산 프로젝트의 핵심인 제2공장 전착공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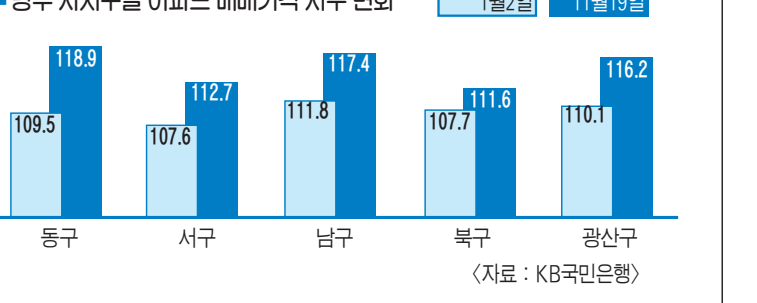
동구 아파트 매매가 급상승 광주 구도심 '문화전당 효과'

올들어 매매지수 9.4P 올라...5개 자치구중 최고

전남도청 이전 이후 '구도심'으로 외면받았던 광주 동구지역 아파트가 최근 인기다. 올들어 동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 19일 현재 전세가격 지수는 광주 동구 120.8, 서구 113.0, 남구 120.5, 북구 114.4, 광산구 119.2로 나타났다. 올 초와 비교하면 동

다, 내년 초 NC아울렛백화점·로드힐스 등 대형쇼핑몰의 입점이 예고되면서 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동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내놓은 셋째아이 이상 출산 시



구는 11.6포인트, 서구 6.3포인트, 남구 8.3포인트, 북구 5.2포인트, 광산구 10.4포인트 상승했다. 광주 지역 평균 전세가격지수는 116.3으로, 올들어 7.4포인트 상승했다. 이처럼 광주 동구의 아파트가격 상승세는 2014년 개관을 앞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효과로 분석된다. 아시아문화전당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구도심인 충장로와 금남지하상가의 상권이 살아나고 있는데

대명리조트 회원권 분양 이달말 마감

대명리조트산업은 창립 33주년을 기념해 반값 회원권인 '하프패밀리 실속형 회원권'을 선착순 분양한다. 이 회원권 판매는 이달 말로 최종 마감한다.



여수 오토도의 엠블(MVL)호텔.

하프패밀리는 패밀리 상품의 절반 값으로, 개인 기명인 경우 1230만원이고 법인 무기명은 1330만원이다. 연간 20박(15+5박)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즉시 회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3월 여수엑스포가 열린 오토도에 엠블(MVL) 호텔-여수가 문을 열었다. 대명리조트 관계자는 "회원인 객 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초 계약에서부터 예약관리까지 철저한 1대 1 지정 전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명리조트 본사로 분양 문의 (02-557-4536)하면 자세한 안내책자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 비즈니스센터 1인기업 입주자 모집

전남도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내년 신규 입주자를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1인 창조기업은 지식 서비스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업하는 것으로 개인이 사장인 직원 1인 기업이다. 모집 대상은 제조업·지식서비스업 등 372개 1인 창조기업 지원 대상 업종의 신규 아이템 보유자로 전남에 거주하면 된다. 또 비즈니스센터 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하거나 창업한 지 1년 이내인 경우다. 센터에 등록된 회원은 창업·경영·법률·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 상담 서비스와 각종 네트워킹, 세미나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는 전남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061-729-2700)나 전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jntp.or.kr)로 하면 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공공기관 고졸 채용 2016년까지 40%로 늘린다

정부는 2016년까지 공공기관 신규 채용 인원의 40%를 고졸자로 뽑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무역전시관에서 열린 '2012 공공기관 열린채용박람회'에서 '열린일자리 토크콘서트'의 사회를 맡아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박 장관은 고졸도 공공기관 취업이

가능하다는 질문에 "정부는 내년 공공기관 취업자의 20% 이상을 고졸자로 뽑고, 비중을 차차 늘려 2016년까지 40%를 고졸자로 뽑고자 한다"고 말했다. 콘서트 패널인 고용노동부 한창훈 고용정책실장이 채용과정에서 학력 차별을 없애려고 노력 중이라고 하자 박 장관은 "경력·학력 등 조건을 무

너뜨린 열린 고용문화가 공공기관부터 민간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것 같아 흐뭇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꿈직마 진학'을 한 뒤 졸업 후에도 학원을 전전하는 시행착오는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교 졸업 뒤 우선 취업하고, 나중에 대학에 진학하는 방안도 권했다. /연합뉴스

Table with columns: 도로복권 (제521회), 당첨번호, 2등번호, 순위, 당첨금(원), 당첨지수. Includes numbers like 3, 7, 18, 29, 32, 36, 19 and amounts like 1,693,420,922.

Advertisement for New Bright International Language School and Bukgyeong Goryeogwan. Features text: '글로벌 인재 양성 NO.1', '중국명문대학 입시, 중국조기유학 입학 설명회', '입시 2012년 12월 01일(토) 오후 2시'. Includes photos of students and school buildings.

Advertisement for Pellet Stoves. Features text: '펠릿 불꽃난로 온풍기', '탄소배출량도 줄이고, 연료비도 절감하는 펠릿불꽃난로 온풍기!!', '연료비 걱정은 이제 그만!!'. Includes images of the stove and a comparison table of fuel costs.